두산계열 7개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 개최

두산그룹(회장 박용오)은 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산에 따르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두산메카텍㈜, HSD엔진㈜, ㈜오리콤, 삼화왕관㈜ 등 두산그룹 주요 7개사는 이날 사별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사내정보망을 개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제 및 제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신입사원 기초교육과 윤리경영 교육과정에 편성시키고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박용오 회장은 선언문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회사 윤리강령 실천과 공정거래관련법 자율준수를 통해 모든 임직원의 업무와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이자"고 말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희 부사장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앨트웰(주),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 개최

이타주의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앨트웰(주)(대표이사 사장 황용석)은 6월 16일 역삼동 앨트웰 본사 교육장에서 직접판매협회 배기정 부회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 용 회장, 중견기업협회 전현철 전무 등 내외빈 및 각 영업점 점장 및 임직원, 각 비즈니스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앨트웰이 창업주인 김 박 회장의 윤리경영을 위한 정도, 투명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해 온 공정거래 관련 정책들에 대한 성과 보고를 거쳐 공정거래 자율준수선언문에서 황용석 사장은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윤리상이 경영의 필수이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변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철저한 윤리의식과 명확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아우르는 사회 친화적 경영을 통한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앨트웰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적극 도입, 실천을 다짐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 용 회장은 축사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경영 덕목'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 동안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온 앨트웰은 업계의 본보기'라고 언급하며 더욱 강력하고 확고한 윤리경영의 실천을 당부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자율준수관리자로써 앨트웰(주) 경영기획감사실의 김 부일 상무가 선임되었으며, 김 상무는 '창업주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윤리경영을 진행해 온 앨트웰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계기로 보다 더 강력한 윤리경영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